부록

입지의 철학적 근거와 배경

입지(立志)

'뜻을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입지는 이이(李珥: 이하 선생으로 약칭)의 여러 저작에서 자주 발견되는 용어이다.

우선 '뜻'[志]의 의미를 선생은 '마음이 가는 곳'[心之所之]으로 정의한다. 주희(朱熹)도 뜻을 '마음이 지향하는 곳'[心之所向]으로 보는데, 이는 같은 뜻이다. 뜻은 대상을 지향하는 의지(will)로서, 단순히 생각으로서 마음의 발동[心地所發]과 그 결과인 의(意, thought or ideas)와는 다르다.

그리고 '세우다'[立]는 '확립(確立)하다', '정립(正立)하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입지는 뜻을 확고하게 또는 똑바로 세움을 뜻한다.

선생은 이 '뜻'의 대상을 사람마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욕망(desire, ambition)과 의도(intent)와 목적(purpose, aim), 삶의 표준(standard) 등이 그것이다. 선생이 말한 '뜻'의 대상은 대체로 목표 또는 표준으로서 성인을 가리킨다.

이 입지는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인간의 실제적 삶에 있어서는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강한 의지의 다른 표현이다. 이 의지야말로 도덕적 행위로 이끄는 원동력이다.

본서에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철학적 근거, 방법, 종류 등을 영역별로 자세히 편집 · 소개하였다.

성리학(性理學)의 탄생과 도입

성리학은 북송의 대표적 유학자들인 주돈이(周敦頤)· 장재(張載)· 소옹(邵雍)· 정호(程顥)· 정이(程頤) 등을 거쳐 남송의 주희(朱熹)가 완성한 새로운 유학으로, 공자 이후의 유가 사상을 불교나 도교 철학의 도전에 따라 새로운 철학으로 해석한 유학이다. 그 이전의 유학이 『오경』(五經) 중심이었다면 성리학은 『오경』보다 『사서』(四書)를 더 중시한다.

송학(宋學)· 이학(理學)· 정주학(程朱學)· 주자학(朱子

學)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유학(新儒學)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말 안향(安珦, 1243~1306)에 의하여 도입되어, 조선을 건국하는 이념이 됨과 동시에 세종조 찬란한 문화를 건설하는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선생 입지 사상의 배경과 아울러 그 전제와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리학을 알아야 한다. 아래 항목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철학적 범주에 따라 성리학을 설명하였다.

리(理)와 기(氣)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과 개념은 다양하다. 성리학은 크게 리와 기로서 설명한다.

우선 기는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 · 물리적 근거이다. 자연계의 물질 현상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현상도 기의 일이다.

리는 세계 또는 사물이 그러하게끔 만드는 원인자[所以然]이자 동시에 사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까닭[所以然之故]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당위적 근거[所當然]이다. 자연물이 아닌 인간의 일을 중심으로 말하면, 리는 당위적

윤리의 근거로 강조된다.

이 리를 달리 천리(天理)라고도 부르는데, 사물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그 다양한 것 가운데 보편적인 리도 있으니 그것이 바로 태극(太極)이며 이것이야말로 세계의 시원에 해당하는 궁극적 존재이다. 이 논리가 이일분수(理一分殊)로서 '이치는 하나지만 각각의 분수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도 없지만[不相離], 그렇다고 섞일 수도 없다[不相雜]. 이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물건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 형상(form)과 질료(matter)의 관계와 흡사하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반드시 리와 기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다만 형체를 이룬 사물은 그 기가 뭉쳐진 질(質)을 이루고, 사람의 몸처럼 그 질 속에 또 기가 들어 있으니 함께 기질(氣質)이라 부른다.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 사물은 리와 기질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의 본성(本性)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 철학적 근거가 풍부한 철학 범주가 인간의 본성 개념이다. 그 가능성을 인간성 안에서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 특수한 사람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선생의 논리를 일반화할 수 없고 보편적인 인간성 설정도 의미가 없다.

그 보편적 인간성은 두 가지 전제를 갖는다.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이고, 다른 하나는 천리(天理)로서 리가 모든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성즉리(性卽理)의 논리이다. 공맹(孔孟)의 유학을 계승한 성리학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이 착하며 동시에 그 본성으로서 갖춰진 이치를 온전히 발휘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선생은 "성인과 보통 사람의 본성은 같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인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리와 기를 소환해야 한다. 누구나 똑같은 천리를 본성으로서 부여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발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성인과 보통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그 원인은 바로 기질(氣質)에 있다고 한다. 곧 기질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지혜롭고 인식 능력이 탁월해 내게 부여된 본성을 잘 깨달아 발휘하지만, 기질이 혼탁하고 어두운 사람은 어리석고 몽매하여 그 기질이 본성을 덮어 가리므로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한다.

보통 사람이 그 기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부와 수양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보하면 자연히 지혜가 밝아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원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본성을 회복하여 본성대로 사는 사람인 그가 바로 성인이다. 그래서 선생은 또 "성인은 배워서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공부를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바로 이런 철학적 근거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공부의 진척 상황에 따라 성인으로부터 무지몽매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 군상의 편차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사람이 저절로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려는 강한 자발적 의지가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입지이다.

거경궁리(居敬窮理)

이제 보통 사람이 성인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곧 배움과 수양이다. 그래서 선생은 "사람의 타고난 기품은 제각기 다르지만, 아는 일과 실천에 힘쓰면, 공을 이루는 것은 다 같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는 일이란 곧 앎의 문제이고, 실천이란 수양을 포함한다.

성리학에서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거경궁리인데, 궁리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므로 배움에 해당하고, 거경은 '경(敬)에 거주한다'라는 수양의 용어로서 여기에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

배움은 『논어』의 첫머리부터 공자가 강조한 이래 유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대학』 8조목 가운데 맨 먼저 등장하는 말이 격물치지(格物致知)인데,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이루는 일이 그것이다. 주희는 이 격물치지를 궁리로 여겼다. 궁리는 원래 『주역』, 「설괘전」에서 궁리진성(窮理盡性)이란 말에 등장하는데 '이치를 궁구하여 본성을 다한다'라는 뜻이니, 형식 논리에서 보더라도 성리학이 이것도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거경(居敬)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수양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수양(修養)이란 수기(修己) 또는 수신(修身)으로서 자기 몸을 닦는 일이다. 몸을 닦는 일이지만,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어, 몸을 닦으면 자연히 마음도 닦이게 된다.

선생이 세운 뜻을 유지하기 위해 경을 강조한 것도 수양의 뜻이다. 경이란 마음을 잡도리하는 일로서, 외물로 달려가 흐트러진 마음을 붙잡아 와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리는 역할이다. 그리고 마음을 잡도리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가 성(誠) 곧 성실인데, 이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을 말한다.

그래서 거경궁리란 깨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천리(天理)로서 갖춰진 내 마음의 이치를 궁구한다는 뜻이다. 이 또한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함양(涵養)과 성찰(省察)

선생의 『성학집요』에 "궁리하여 선을 밝히고, 돈독한 뜻으로 기를 통솔하며, 함양하여 성실을 보존하고, 성찰하여 거짓을 버려서, 어둡고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라는 말이 등장한다. 궁리와 더불어 함양과 성찰은 공부와 수양에서 성리학의 주요 개념이다.

함양이란 다른 말로 존양(存養)으로도 부르는데, 쉽게 말해 본성으로서 주어진 천리(天理)를 마음에 잘 보존하는 일이다. 이것은 『중용』에서 말하는 본성이 희로애락의 정(情)으로 발동하기 이전의 상태인 미발(未發)의 공부이

다. 미발이란 마음이 깨어 있으나 아직 외물과의 접촉이 없어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것을 중(中)이라 부른다.

성찰이란 마음이 사물을 만나 본성이 감정으로 드러난 이발(已發)의 공부로서, 그 감정이 지나쳤거나 모자람이 없었는지 되돌아 살피는 일이다.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이 절도에 들어맞았을 때 화(和)라고 부른다.

모두 성인이 되기 위한 수양 공부이다.

존심(存心)

선생은 「시정사학도」(示精舍學徒)에서 "도에 들어가는 기본은 입지가 원대하고 존심이 독실한 데 달려 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존심이란 '본심을 보존한다'라는 뜻으로 『맹자』에 등장한다.

맹자가 말한 본심이란 성선설에 근거한 착한 마음인 인간의 본래 마음이다. 달리 말하면 『서경』에서 말하는 도심(道心)과 같다. 육체적 욕망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선을 지향하는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맹자는 인(仁)과 예(禮)로서 마음을 보존한다고 하였다.

『맹자』에는 이런 본심을 잃은 상태를 방심(放心) 곧

놓아버린 마음으로 표현한다. 마치 기르던 소나 닭 같은 가축을 놓아버린 것으로 비유한다. 가축을 집으로 몰아오듯 놓아버린 마음을 되찾는 일을 구방심(求放心)이라 일컬었다.

선생은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는 일을 독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기치인(修己治人)

"자기 몸을 닦아 남을 다스린다"라는 수기치인은 『논어』에 등장하는 말이다. 『논어』에서는 또 '자기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修己而安百姓)라는 말도 있는데, 같은 말이다.

이후 이 말은 유학의 본질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인용된다. 『대학』 8조목의 격물(格物)부터 수신(修身)까지는 수기의 일이고, 제가(齊家)부터 평천하(平天下)까지는 치인의 일로 본다.

수기가 개인의 앎과 실천의 문제라면, 치인은 사회·국가적 실천의 문제이다. 『대학』 제가(齊家)의 가(家)도 대부(大夫)가 다스리는 작은 단위의 나라이다.

이 논리를 따르면 통치자는 수기를 통해 성인이 되어야

한다. 또 치인의 관점에서 보면 임금은 왕이다. 유학에서 이상적으로 바라는 군주는 바로 '안으로는 성인이면서 겉으로는 왕'이므로, 학술 용어로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이다. 선비들이 임금을 대할 때마다 '성군(聖君)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그런 배경을 갖는다. 하지만 내성외왕은 유가 문헌이 아닌 『장자』의 「천하」편에 최초로 보인다.

왕도(王道)와 패도(霸道)

선생이 선조 임금에게 통치자인 군주로서 어디에 뜻을 두어야 할지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 두 용어는 『맹자』에 등장한다.

왕도는 군주가 타고난 본래의 착한 성품을 발휘하여 잘 다스리는 도덕적이고 어진 정치 방법으로서, 맹자는 이것을 달리 인정(人政)이라 일컬었고, 그런 정치 형태를 후대에 왕도정치(王道政治)라 불렀다.

반면 인(仁)을 가탁(假託)하여 힘으로 다스리는 것을 패도라 하였고, 그렇게 하여 대국을 이룬 사람을 패자(霸者)라 불렀는데, 그런 정치 형태를 후대에 패도정치(霸道政治)라 불렀다. 패도정치는 대개 부국강병을 지향한다.

선생은 한나라와 당나라의 전성 시기도 왕도가 아닌

패도로 보고 있다. 왕도정치라는 성리학의 이념에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생은 또 왕도정치와 유사한 표현으로 삼대(三代)와 요순(堯舜)의 정치, 그리고 치치(致治)를 언급하였는데, 삼대란 유학자들이 이상으로 삼는 하(夏)·은(殷)·주(周) 삼대의 정치를 말하고, 요순의 정치는 고대의 태평한 시대를 이루었다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정치를 말한다. 그리고 치치는 이상적으로 잘 다스려지는 정치 상황을 묘사한 말인데, 일찍이 『사기』나 『자치통감』 같은 문헌에 보인다. 중종 때 조광조(趙光祖)가 이 치치를 표방하여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좌절하였다.

이는 유학이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백성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정치를 통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유학 사상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지만, 유독 정치적 담론이 많은 까닭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도덕 실천의 동력

선생이 입지를 강조한 의도를 생각해보면, 성리학 내에서 도덕을 실천할 동력을 어디서 찾느냐의 문제와 연관된다.

육체적 욕망은 생물학적 본능을 따르므로 실천의 동기나 동력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욕망 자체가 강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덕적 행위는 그렇지 않다. 비록 성리학이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인간 본성에 정초시켰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 본성대로 살지 않는다. 그 또한 성리학에서 기질의 개념으로 잘 설명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인간답게 또는 본성대로 살려는 인간의 강한 의지가 개입해야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반하는 공부와 수양의 동력도 그 의지로부터 나온다. "뜻이란 기의 장수이다"라는 말이 그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보통 사람에겐 그 의지도 욕망을 향한 의지만큼 인간을 크게 지배할지 의문이다. 훗날 서양에서 다수의 이익(욕망)을 추구하는 공리주의(功利主義)가 출현한 일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